

정보사회의 몇 가지 문제점과 종교적 대응 방안 모색

한 내 창

(원광대학교)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가 관심 가져야 할 정보사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해보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가 가져다줄 긍정적 요소들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미화(美化)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정치경제학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은 정보사회가 부정적 측면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논의된 정보사회의 문제들은 정보 범죄, 정보 격차, 사생활 침해의 문제, 문화적 제국주의, 그리고 공동체 파괴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보사회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종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종교는 이러한 문제들의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에 바탕한 문화적 대안 또는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의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I. 이끄는 말

종교는 그동안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는데,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합리적 접근들이 틀을 잡으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인간 활동의 전체 영역으로 침투하여 비합리적인 영역을 축소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

적 활동을 강조하는 종교도 합리화의 조류에 휩쓸려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어떤 현실적 활동이나 사상적 조류도 반동 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관점들은 존재를 접근하는 하나의 구성적 시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과학적 합리주의도 반작용과 보완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합리화의 물결이 극에 달한 20세기에 들어서 기독교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던가 또는 종교인의 숫자가 팽창하는 현상은 이러한 논리를 지지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종교가 전통적 사회에 비해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의 새로운 문화적 적응과 사람들로부터의 종교적 요청¹⁾이 종교의 역할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본다 (노길명·한내창 1997; 정순일·한내창 1997).

그러나 종교의 역할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종교는 다른 제도들을 선도(先導)해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 다른 사회 제도들에 적응해 나가야 할 측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사회적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라 한다면,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종교적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가정되는 미래 고도정보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을 적시해 보고 이런 문제의 이해에 기초한 종교적 접근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몇 가지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까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매우 피상적·시론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먼저 전제하고, 나름대로 문제의 일단이나마 정리해봄으로써 후속 연구의 발판 역할을 하고자 한다.

1) 현대 사회의 기계론적 우주관과 합리주의적 가치관에 압도당하여 온 사람들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요소를 요청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이것이 종교적 욕구를 자극하였다고 본다.

II. 정보사회의 도래

1. 정보사회의 정의

우리는 변화된 환경의 사회를 탈산업사회, 후기 산업 사회, 탈 근대화 사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임희섭, 1995; 김원동, 1996),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그 앞에 ‘고도’라는 수식어를 붙인 ‘고도 정보사회’일 것이다. 정보사회는 이제까지와는 구조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로 예견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구조에서 새로운 물결을 이룰 것으로 논의된다(Toffler, 1980; 추광영, 1993; Maynard & Mehrtens 1994).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된 하드웨어적 하부구조와 이를 이용한 정보의 생산·처리·유통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하여 사회 전반에서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진 사회를 말한다(전석호, 1995). 직업 구조면에서 정보 산업이 미래의 주력 업종으로 부상되며(Bell, 1973; Lyon, 1988), 사회의 생산 양식이 공업 생산에서 정보·지식 생산으로 바뀐 사회를 의미한다.²⁾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가?

그 변화의 물결은 일차적으로 정보 생산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와 정보 생산·가공·처리,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은 처음에는 기존 공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산업 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으로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Porat, 1978; Mody, 1985). 제조업·유통업을 보충하는 지원적 토대로써 컴퓨터 및 통신 산업이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로 이들의 높은 독립적 생산성·부가 가치성이 인정되면서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부구조의 발달만으로 정보사회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 체계 (Wallerstein, 1974a, 1974b; Hopkins & Wallerstein, 1982)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2) 물론 정보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정보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가족, 종교 등 다양한 사회의 제 측면들에 복합적으로 관련된 포괄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경제 생산 양식의 의도적 변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신윤식 외, 1992). 세계 경제에서 권력의 핵을 유지하려는 핵심 국가(특히, 미국)들이 가치 부가의 원천을 변화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H. I. Schiller(1984; 1990)는 미국이 정보화를 주도한 원인이 제조업에서 경쟁적 이점을 회복하고, 정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로 무역 불균형을 보상받고,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적 활동에 정보 통신 미디어들을 이용하며, 군사 연구 개발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적 지식들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의한 세계 시장의 왜곡 현상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정보사회가 기술 발전에 의해 자동적으로 등장한 사회라기 보다는 이 사회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핵심국가들과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본다.

이처럼 정보사회는 기존 사회의 생산 및 소비구조를 보완하고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가 그 자체 새로운 사회 구조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 매김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국가들(core states)의 의도적 노력과 파워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정보사회가 갖는 함의

그러면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 정보사회는 우리들에게 많은 긍정적 측면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얘기한다. 굴뚝 없는 생산을 통한 환경 문제의 개선, 정보 산업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 직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증대, 생산력 증대로 인한 생활상의 풍부함과 편리성 증대, 전쟁 위험의 감소와 정치적 민주화의 증대, 가치의 유연화와 다원화를 통한 사회 심리학적 환경의 인간화 및 재정신화 등(Stonier, 1983; Maynard & Mehrtens, 1994; Lyon 1995; 김문조, 1997) 수많은 밝은 요소들이 열거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그렇듯이 모든 요소들도 양면성을 지닌다. 즉, 굴뚝 없는 생산이라 하지만 이것은 정보사회로 이행한 선진국가들에 한정된 얘기이고,³⁾ 정보 관련 직종의 증가는 재래 산업을

3) 따라서 전세계적 분업구조에서 보면 정보사회를 이룩한 국가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역시 굴뚝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종의 폐기와 정보사회에 적응 능력이 없는 산업 예비군들을 조기에 은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중감이 상쇄되는 경향을 보이고, 생활상의 풍부함과 편리함은 정보사회에서 접근 기회의 불평등 요소에 의한 효익의 불평등적 분배에 의해 그 설득력이 감소되며, 정치적 민주화 등은 감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화의 회복은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소외에 의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의미가 없지 않다(Schiller, 1990). 따라서 우리는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미래에 대해 일방적인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종교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III.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

1. 정보 범죄

정보범죄는 컴퓨터·통신 장비의 절도 및 파괴를 비롯하여 데이터·프로그램의 절도·변경·파괴, 재정적 사기⁴⁾, 서비스의 절도, 산업 스파이, 해킹 및 크래킹 등을 포함한다(姜東沅 1985; Neumann 1991; Harrington 1995; Johnstone 1996). 이러한 정보 범죄는 컴퓨터·통신 장비나 프로그램·데이터와 같이 정보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전통적 범죄(폭력이나 범죄 등)를 보다 지능적이고 정교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보 범죄는 금전 절취나 정보 절도·변환, 신분 위장 및 변경과 같이 자신의 현실적 목적을 위해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4) 수표나 현금의 위조 (McClellan 1995), 은행이나 기업의 구좌에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다양한 방법 (菅野文友, 1992; 申珏澈, 1993) 등.

크래킹, 복수, 사보타지, 정보 테러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정보 기술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두 가지 목적은 동기 면에서 전통적 범죄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보 범죄에서 특이한 점 하나는 재미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아니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해커들이 자신들의 천재성을 입증시키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로 컴퓨터 시스템들을 파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러한 정보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申珥澈, 1993; Harrington, 1995; Stephens, 1995; Jhonstone, 1996). 첫째, 정보범죄는 찾아내기가 어렵다. 흔적을 별로 남기지 않고 복제, 절취되기 때문에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힘든 편이다. 그리고, 정보 기기의 일상적 사용, 쉬운 접근, 사용의 용이함, 혐의 발견이나 증명의 어려움, 많은 사람이 저질러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여건이 주어진다면 정보범죄를 규명하고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정보범죄자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고학력자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 범죄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로 전문 범죄자나 범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⁵⁾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다량의 데이터가 회선을 따라 이동하고, 자유로이 시스템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부정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 셋째,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범죄자들이 혁신자 또는 귀재로 찬미되는 경향마저 있다. 시스템의 방어·보안 기재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에 도전하는 매력을 더해 주어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기보다는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범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전통적 범죄들은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정보 범죄의 대다수는 내부자 소행이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부자나 혹은 내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정보 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다섯째, 범죄의 사회적 효과

5) 저비용, 사용의 간편함, 기기의 광범한 확산, 누구나가 간단히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소량의 위조를 시도하기 때문에 위조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발견된다 하여도 가볍게 처벌된다는 점 등이 PC에 의한 위조,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McClellan, 1995).

가 매우 크다. 각종 제어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회 영역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의 파괴나 부정한 조작은 다수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주며, 경제적·사회적 기초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다.⁶⁾ 그 영향력이 있어서 핵폭탄보다 더 가공할 만하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이다. 여섯째, 정보 범죄는 신종 범죄로써 많은 측면에서 범죄 요건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방어할 만한 기술, 법률 대책, 전문 인력 등도 부족한 편이다. 범죄의 유형,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지식이 아직 원초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정보 범죄에 주목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새로 등장하는 신종 범죄 유형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 범죄를 주목하는 이유는 위의 정보 범죄 특징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것들로, 첫째 정보 범죄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사회가 조직화될수록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따라서 한 체계 부분의 잘못된 작동은 전체 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세계 또는 하나의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의 붕괴나 파괴는 많은 사회·조직과 개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는 범죄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전통적 범죄들은 일부 범죄(사기와 같은)를 제외하고 대개 지능수준이 다소 낮고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정보 범죄는 다수의 고학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으므로써 범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 확률이 높다. 고도의 정보 기술자들이 정보 범죄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이에 대한 대책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셋째, 범죄의 저변 확대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양심적 가책을 덜 느끼고, 일상적인 업무와 연결된 곳에서 범죄의 기회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의 한 제도로써 종교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주목을 기울이고 대처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6)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 비행 관제 제어 시스템, 원자력 발전 제어 시스템 등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각종 기업과 은행들의 금융망 시스템은 재산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고도의 지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고객 신용 정보 시스템이나 행정 전산망 데이터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이용되게 되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申珪澈, 1993).

2. 정보 격차

생존경제 상황을 넘어서 사회에서는 부의 분배와 관련한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보편적 현상이다.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사유재산이 이념적·법적으로 허용되고 화폐의 보편적 사용으로 부의 축적이 용이해지면서 계층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분배가 개선될 것인가? 기술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용이해지고 권력의 독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분배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보 접근 기회 평등은 정보 및 정보 관련 재화의 평등한 배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데올로기적 기회 평등이 실제적 효익의 분배 평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산업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은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보 접근은 많은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김영석, 1995; 신윤식 외, 1992). 정보 기기를 구입한다든가, 정보 이용료에 들어가는 비용,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투여되는 비용 등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비금전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정보사회의 문을 개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불평등 구조의 연속선상에서 정보사회의 계층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누구나 정보 기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지만, 끝없이 창조되는 새로운 기술 영역은 보편화된 기술 영역을 훨씬 넘어서 발전하고 있다. 애써 습득한 정보 이용 능력이 발달된 기술 때문에 무용화됨으로써 정보 기술 습득의 후발주자는 계속적으로 선두주자를 뒤따라 가기에 바쁜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정보 접근의 격차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Katzman, 1974).

또한 사회 계층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에서의 핸디캡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동기의 부족 때문에 정보사회

의 주어진 기회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Katzman, 1974).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정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즉,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정보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잉정보가 오히려 정보 처리 능력을 마비시키고(김영석, 1995) 인지적 혼란을 가져와 심리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보 획득·이용에 대한 동기가 사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이는 정보 기술의 차별적 접근 기회에 매개되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보 격차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⁷⁾(Mosco & Herman, 1980; Schiller, 1981, 1983, 1993; Wad, 1985; Mody, 1985; 류재풍, 1993; 추광영, 1993). 초기에 정보 산업은 개별 기업과 공공 조직의 내부 활동을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다(Porat, 1978). 자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정보의 하드웨어들이 창출되고 운용되었다. 이것이 점차로 전체 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사회의 기반이 자리 잡게 된다.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는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세계를 하나의 체계 속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세계적 정보망은 핵심국가들에게 값싼 노동력과 원료·시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자본 축적의 하부구조로서 역할을 한다(Mosco & Herman, 1980; Mody, 1985). 또한 정당성 부여를 위한 이데올로기 창출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적 정보망은 그것을 구성하고 주도하고 있는 핵심국가(core states)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그들은 정보 통신 기술과 조직, 전문 인력, 지식·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다. 저개발국은 자체 기술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선진 정보 기술을 흡수할 수 없다. 단순히 최종 상품화된 정보들(end products)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핵심국가의 정보 기

7)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접근 기회의 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내용 등이 대부분 서구 중심 국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유네스코, 1990).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정보 산업의 하부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지식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축적시켜온 정보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기술적·사회적 능력을 제3세계 국가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잡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더욱이 하드웨어적 기계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정보 기술일 경우는 모방조차도 쉽지가 않다.

술은 그들의 제고된 산업 효율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부산물⁸⁾로 생산되었던 정보·지식, 그리고 문화 상품들이 새로운 부를 창출, 자본 축적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보 산업은 세계의 기존 지배-종속 분업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사생활 침해의 문제

정보사회에서 각종 데이터 베이스는 개인의 사적 자료를 포함한다(김영석, 1995). 데이터 베이스는 국가의 효율적 정책 수행이나 개인의 복리 증진, 그리고 기업·조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수집·축적된 정보들이 개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신윤식 外, 1992; Lyon, 1995).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기술들(신용카드, IC 카드, 행정·의료 전산망 데이터 베이스, 사회복지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등)이 개인의 신상 및 행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들에게 불이익적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정보 처리 단계별로 몇 가지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정보 수집단계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보 소비자들의 정보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유통시킴으로써 개인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공개적이지만 은폐적인 목적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객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 이상을 확보하여 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둘째, 정보 처리·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목적에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데이터 베이스가 다른 목적으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것이 개인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 컴퓨터 매칭에 의해 “혐의 범주”를 설정하고(Lyon 1995) 개

8) 이제는 더 이상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 주요 생산물이 되었다.

인들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는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혐의 범주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입증되기까지는 잠정적인 유죄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국가 치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자 리스트를 구성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 베이스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되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한 혐의는 벗어질 때까지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토록 하며, 혐의가 벗어져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하여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또 개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데이터 베이스들로써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나 이것들이 결합하면 개인에 관한 ‘데이터 이미지’를 구성하며 이 자료가 개인에게 불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셋째, 자료 관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데이터 베이스에 삽입된 경우 개인들은 그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베이스는 어떤 목적으로 한번 작성되면 쉽게 수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결국 개인들의 불이익은 클 수밖에 없다. 또 데이터 베이스 생성자들이 실수로 입력한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개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공서나 사설 기관에서 개인들에 관한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을 때, 생성자의 잘못된 경우에도 개인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잘못 입력된 사실을 알 때는 자료 생성이 일어난 한참 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왜 발생했으며, 누가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리고 생성자의 실수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해서는 대부분 복잡한 관료적 절차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불량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가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개인들은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의 데이터 보호법, 사생활 보호법 등이

제정되고 있어 다행스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법들은 대부분 기술의 발전 능력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관련 문제를 이해하여 포괄적으로 대처하기에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4. 문화적 제국주의

문화란 부호화된(coded) 본능과는 달리 인간들이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합리적으로 또는 가치적으로 선택한 생활 양식들의 총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교통·통신의 미발달로 장구한 세월동안 인류는 지정학적 조건에 격리되면서 각각의 사회가 독특한 문화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와 기술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편입되면서 각각의 문화는 체계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였다. 물론 문화들은 상호 접촉을 통해 변용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적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인 문화로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의 독립된 문화 체계가 다른 문화 체계에 의해 파괴 또는 종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타문화를 주체적으로 소화하면서 시간을 두고 수용하는 것은 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일방향적으로 외부 문화가 주입된다든지 또는 강요되는 경우에는 수용문화의 파괴를 가져온다.

문화적 종속은 이처럼 외부 문화에 의해서 문화적 수용이 일방향적으로 강요되는 상황을 말한다(유네스코 1990).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서 상징적·사회적 요소들(적응 문화적 요소들)은 상당 부분 가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서두르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경계심을 유발하였고, 거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구적·기술적 요소들은 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도구는 체계적 적응 양식과 결합될 때 의미를 지닌다. 마치 자동차를 도입하면 각종의 도로 체계나 법률 체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 구조의 발달 등으로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기술적 도구 문화는 적응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폭과 속도가 피수용국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고 넓으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은 불가능해진다. 이미 세계 체계로

편입 정도가 높아서 상호 의존도가 클수록 중심 국가들의 도구적·적용적 문화 체계의 수용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게 된다. 허접지접 수용하는데 바쁜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문화 체계에 이질적 문화 요소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은 사라지고 수용하는데 급급하여 결국 비동시적인 것의, 이질적·배타적 요소들의 동시적 공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때론 갈등과 대립의 요소들이 타협점 없이 혼재하게 된다(Hamelink, 1983). 물론 이러한 상황이 사회에 역기능적인 것만을 아닐 수도 있다. 한 문화의 관용 능력을 향상시켜 문화적 다원성과 유연성을 향상시켜 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주체 문화가 수용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선택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발생한다. 다원적 통합 능력을 상실하고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 요소들이 체계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정능력을 상회하는 다원성·이질성은 체계의 종속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서구의 중심 국가들은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문화를 개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개도국들은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장비들(방송국 설비나 위성 시설 등과 같은)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도입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 그리고 운용의 조직적·체계적 요소들(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 등)을 서구 국가들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상품들(TV 프로그램, 뉴스 필름, 영화, 광고, 서적, 음반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 기술축적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문화 종속을 장기화·영속화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의 다른 전통적 부분들과 발전 속도가 다르거나,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서구의 발달된 문명의 도입은 오히려 자국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워낙 정보 기술 누적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서 상호 교호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5. 공동체 파괴 문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특정한 지정학적 위치에 군집해 있으

면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며 상호 작용하는 집합체를 말한다(Leslie, Larson, & Gorman, 1973; Zanden, 1990). 공동체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와 심리적 소속감이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심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동체라 볼 수 있다. 현대 산업 사회가 등장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많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⁹⁾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일부를 파괴한 면이 없지 않지만, 조직 내에서 비공식 집단들이 자생하고 있었고 밀집된 공간에서 비록 이차집단이라 하여도 나름대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차 집단적 성격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기술은 일을 위해 밀집된 공간에 모일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역적인 준거틀을 무력화시킨다. “시공간의 융축”(박길성, 1996; 김문조, 1997)은 고전적인 시공간 개념을 붕괴시켜 버린다.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넘어서 동시적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의 집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서로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리적·공간적 구속력은 상실되게 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전문가들¹⁰⁾이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면서(김원동, 1996) 이들은 점차로 조직 문화나 윤리에 의해 생활하기보다는 전문가적 윤리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 조직 문화 속에서 개인들은 비록 이차집단에 속해 있지만, 같은 배를 탄 동료들로서 상호 밀집한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면서 일차집단적 상호 작용을 해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개인들은 원자화된 개인들로 필요에 의해서만 접속되고, 관심에 의해서만 유대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감성적 요소를 상실하고 이성적인 측면을 주로 갖고, 강한 전인격적 유대감보다는 부분 인격적 소속감을 가질 것이다. 물론 이런 자발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정박점 구실을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전인격적 공동체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소외감을

9) 여기서 전통적인 공동체란 혈연적·지연적 공동체를 말한다(임희섭, 1995).

10)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예를 들면, 디자이너, 기사, 건축가, 시스템 분석가, 연구 개발자 등)과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료계, 교육계, 사회 사업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IV. 정보사회에서의 종교 역할 모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평등 교환관계는 경제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유네스코, 1990).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의 모든 유무형의 요소들이 정보 가치를 지니게 된다. 정보 가치를 발굴해 내는 데 있어 선진국들은 지식산업이라는 사회의 막대한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방대한 자본의 지원이 주어지면 정보의 발굴이 선진국에 의해 독점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선진국들은 정보의 생산뿐 아니라 정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 정보의 전달 수단들인 각종 매체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정보 산업이 선진국에 의해 독점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산업은 자연과 사회에의 적응 양식이기 때문에, 정보 산업도 그것을 주도하고 창출해 나가는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정보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선진국의 표현 양식을 택하게 되고, 내용까지도 선진국의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정치적, 사회적 정보들은 물론 객관적 정보(과학적 지식과 같은)까지도 정보는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에 들어서 과거의 군사적, 정치적 불평등 분업 구조가 경제적 분업구조로 형태를 바꾸었는데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적, 정보적 불평등 구조로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에게 한가지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물론 종교가 이러한 문화적 조류 모두에 간섭할 수도 없고 조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다만 종교가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에서 스스로 떠맡아야 할 조그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문화적 제도이다. 하나의 제도로써 종교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들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당위적 가치들을 창조해 왔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는 당위적 가치들이 합리적, 기술적 정보(지식)들에 의해 매몰돼 가고 있다. 합리적 정보와 기술적 문화의 범람 속에서 자칫 매몰되기 쉬운 규범적 문화, 그리고 그 규범적 문화조차도 선진국의

문화적 가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해석되는 상황에서 종교들의 역할은 어떻게 각 국가의 주체성 있는 규범적 문화를 창달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각 사회의 폐쇄적 가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지방주의(localism)적 가치를 심도 있게 소화한 상태의 세계주의(cosmopolitanism)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가치만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선진국 주도의 정보들 속에서 문화 제국주의적 부호(code)들을 분리해 내어 가능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창조해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어느 한편의 맹목적인 추종은 그 사회를 미래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의 규범적 문화 창조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관련하여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래사회에서의 규범들은 과거 사회에서의 윤리 규범들과 많은 질적 차이를 보일 것이란 점이다. 과거의 범죄들은 주로 대인적, 대물적 행위와 관련되어 형성되는데, 미래의 범죄들은 정보의 유통과 조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대인적, 대물적 행위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죄의식을 가져다주고, 양심의 가책을 쉽게 느끼게 하지만 정보의 조작을 통한 행위들은 그러한 감각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보 범죄는 그 피해가 간접적이고 점진적이겠지만 그 피해 범위는 매우 넓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종교의 윤리 규범들은 대인적, 대물적 행위를 넘어서서 정보 창조, 유통, 소비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정보사회에서의 또 한가지 문제는 정보의 유통과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 회구된 욕구 충족 이외의 전인격적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에서는 발달된 통신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오직 특수화되고 통로화된 정보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일을 하게 된다. 집에서 개인적 일은 물론 직장의 일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위계적 서열을 확인하고 구조화시키는 계층사회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일의 수행에도 보고의 채널과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 공간과 다른 제반 요소들이

어울려 만들어냈던 계급 사회적 요소들(공간 배치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등등)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점차로 통로화된 정보 욕구들만을 위해 네트워크에 가담하게 되고, 분화된 욕구들을 세분화된 채널을 통해 충족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통로화된 관심을 가지고 단일부호화된(uni-coded) 언어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도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사회의 하부구조는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의해 조직이 움직여 나간다면 중앙의 통제는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개인은 자율성을 많이 지니게 된다.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확산은 개체화를 가속화시키고 공동체의 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임희섭, 1995). 전문성에 기초하여 개체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회의 각 부분들의 기능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Coser, 1992), 결과적으로 사상적 무정부 상태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체화된 정보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매우 필요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미래의 공동체는 과거처럼 강요와 타율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계급 구조적 공동체, 그리고 일률적 가치지향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관용과 자율, 그리고 참여의 가치지향을 가진 공동체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송복, 1995). 여기서 종교적 조직의 활동 방향이 엿보인다. 개체화된 이차적 사회에서 신앙인들과 일반인들이 서로 어울려 조그만 공동체(꼭 지역공동체일 필요는 없다)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성 상실의 갭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만남의 공간과 만남의 계기들, 모티브들을 제공함으로써 종교는 원자화된 정보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 공동체를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가 갖는 또 다른 사회적 함의는 그것이 사람들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한편으로 사람들은 많은 자율의 특권을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기술적 방법에 의한 세밀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Lyon, 1995). 우리에게 사회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각종의 기계들(예를 들면, 신용 카드나 은행 통장 등)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과 비례하여 우리의 행동을 마

음만 먹으면 쉽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남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기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사용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정보들을 남겨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코드 하나가 권력을 제조업체로부터 유통회사로 넘기게 한 혁명을 가져왔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지불할 때 값을 계산하기 위해 전자주사선을 바코드에 비추는 단순한 행위가 수많은 정보를 유통업계에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온갖 주문을 하는 권력 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례이다(토플러, 1995).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다. 정보사회에서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되며 오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백화점 고객 명단의 누출이 살인 명단으로 바뀐다든지, 선량한 시민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가 그 사람의 가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러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의 뒤에는 정보가 있고 개인들이 남기는 정보가 사회의 어딘가에 결집되게 되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허용되게 되면 그 해악적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종교는 이러한 통제 사회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는 통제, 감시의 메카니즘에 대한 저항 내지는 건전한 사용을 위한 운동의 전개요, 다른 하나는 개인들로 하여금 지나친 현대 문명의 탐닉에서 오는 자신도 모르게 감시의 초점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의 노력은 그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의문시되지만, 후자의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종교가 할 일들은 많이 있다. 현대 문명에 탐닉하면 할 수록 개인들은 수많은 정보를 뒤에 남기게 되고, 자신을 감시의 그물망 안으로 스스로 위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종교는 지나친 소비 문화, 향락 문화를 자제케 함으로써 어떤 주체에 의한 감시의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 맺음 말

정보사회와 그리고 종교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필자가

정보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활동 방향들을 모색 제언한 것은 주제를 넘은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 속에서 섭렵한 사회과학적 지식들을 단편적으로나마 결합하여 정보사회에서 종교의 활동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미래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종교의 역할 분야를 몇 가지 제언하였다. 먼저 반주변 국가(semi-periphery state)로서의 한국에 위치한 종교들은 국제적 분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의 적극적인 문화 창조활동을 제언하였다. 문화 창출에서 국수주의와 사대주의의 틀을 넘어서 세계-지방적(cosmo-local) 문화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규범적 문화와 관련하여 종교는 과거의 규범들이 갖는 가시적이고 즉시적인 대인·대물 관련 규범들뿐만 아니라 정보들과 관련된 규범 내지 윤리관 제시에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는 원자화되고 이차적 관계가 지배하는 정보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의 역할을 모색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 문명을 직시할 수 있는 균형감각 있는 시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빅 브라더스”의 감시사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테크노피아는 우리에게 비용 없는 ‘축복이 약속된 시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며 가꾸어 가야할 미래상이라는 점을 종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姜東汎(1985). 컴퓨터 犯罪試論. 서울: 經進社.
- 강준만(1989). 정보제국주의: 제3세계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 서울: 한울 아카데미.
- 菅野文友 지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1992). 컴퓨터 범죄의 메카니즘.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김문조(1997). “성숙 정보사회의 가능성 진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엄(21세기 한국사회의 쟁점) 발표 논문.

- 김세원 · 추광영 공편저(1993). 情報社會의 挑戰. 서울: 貿易經營社.
- 김영석(1995).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pp. 25-191. 최정호 외 7인 엮음. 정보사회와 우리(한림과학원 총서 30). 서울: 소화.
- 김원동(1996). “다니엘 벨: 정보화 사회.” 박길성 외 10인 엮음. 현대 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노길명 · 한내창(1997). “대학생들의 종교적 사회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宗教研究 14輯: 109-144.
- 박길성(1995). “글로벌 사회.” 박길성 외 10인 공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細貝 康夫 지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1990). 컴퓨터 범죄와 암호화 대책.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송복(1995). “21세기 사회와 共同體 生活文化.”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申珏澈(1993). 컴퓨터와 법률문제. 서울: 法英社.
- 신윤식, 이철수, 박재천, 이정훈(1992). 정보사회론(정보사회총서 I). 서울: 주식회사 데이콤.
- 오갑환(1976). 社會의 構造와 變動. 서울: 博英社.
- 와이즈 디베이스 편(1995). 세계로 가는 經營.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유네스코 엮음. 김영석 옮김(1990). 국제 정보 질서 문화론. 서울: 나남.
- 임희섭(1995). “정보화 사회의 사회 구조.” 최정호 외 7인 엮음. 정보화 사회와 우리(한림과학원총서 30). 서울: 소화.
- 立川 敬二 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1995).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정보화 시리즈 29).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전석호(1995).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출판.
- 정순일 · 한내창(1997). “종교성과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645-670.
- 한복희 · 기민호 편저(1993). 정보사회론.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 “Terrorism via the Internet.” The Futurists 31(Mar./Apr.): 64-65.

-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ernstein, Daniel & David Kline 지음. 김광진 옮김(1996). *정보 고속도로의 꿈과 악몽*.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Chase-Dunn, Christopher & Richard Robinson(1979). "Toward a Structural Perspective on the World System." *Politics and Society* 7: 453-476.
- Chase-Dunn, Christopher(1981). "Interstate System and Capitalist World-Economy: One Logic or Two."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 19-42.
- Coser, Lewis A. 지음. 신용하, 박명규 옮김(1992). *사회 사상사*. 서울: 일지사.
- Harrington, Susan J.(1995). "Computer Crime and Abuse by IS Employees." *Journal of Systems Management* 46(Mar./Apr.): 6-11.
- Hopkins, Terence K. & Immanuel Wallerstein(1982). *World-System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Issack, Thomas F.(1978). "Intuition: An Ignored Dimension of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 917-922.
- Johnstone, Helen(1996). "Computer Crime Skyrockets." *Asian Business* 32(Dec.): 18-19.
- Leslie, Gerald R., Richard F. Larson, & Benjamin L. Gorman(1973). *Order and Change: Introductory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yon, David 지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옮김(1995). *전자 감시 사회(정보화시리즈 30)*.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Maynard, Herman Bryant Jr. & Susan E. Mehrtens 지음(1994). *한영환 옮김. 제4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McClellan, Doug(1995). "Desktop Counterfeiting." *Technology Review* 98(Feb./Mar.): 32-40.
- Meyer, John & Brian Rowan(1977).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363.
- Moore, Richter H. Jr.(1994). "Wiseguys: Smarter Criminals and Smarter Crime in

- the 21st Century." *The Futurists* 28(Sept./Oct.): 33-37.
- Neumann, Peter G.(1991). "Computers, Ethics, & Values." *Communication of the ACM* 34(July): 106.
- Schiller, Herbert I.(1983). "The World Crisis an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18: 86-90.
- Schiller, Herbert I.(1984). "Informatics and Information Flow: The Underpinnings of Transnational Capitalism." In Vincent Mosco and Janet Wasco (eds.). *The Critical Communication Review* 2. Norwood,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
- Schiller, Herbert I. 강현두 옮김(1990). *현대 자본주의와 정보지배 논리*. 서울: 나남.
- Stephens, Gene(1995). "Crime in Cyberspace. *The Futurists* 29 (Sept./Oct.): 24-28.
- Stevens, Robert E. and David L. Loudon(1992). *Marketing for Churches and Ministri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 Stonier, Tom(1983). *The Wealth of Information*. London: Thames-Methuen.
- Toffler, Alvin 지음. 이규행 감역(1995).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Morrow.
- Wallerstein, Immanuel(1974a). *The Modern World 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 Wallerstein, Immanuel(1974b).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System: Concepts of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 387-415.
- Zanden, James W. Vander(1990). *The Social Experience: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 * 아래의 인용들은 박홍수·김영석 공편. 1995. *뉴미디어와 情報社會*. 서울: 나남. 에서.
- Bell, Daniel. 1987.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 Hamelink, Cees J. 1983. “정보사회의 도래와 문화적 자주성의 침해.”
- Katzman, Natan. 1974.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영향: 몇 가지 이론적 전제들과 그 함축적 의미.”
- Mody, Bella. 1985. “제3세계 상황과 제1세계 커뮤니케이션 기술.”
- Mosco, Vincent & Andrew Herman. 1980. “뉴미디어의 발전과 급진이론.”
- Pleton, Joseph N. 1983. “정보사회의 특성.”
- Porat, Marc U. 1978. “정보사회의 세계적 의미.”
- Singleton, Loy A. 1987. “미래의 테크놀로지와 매스미디어.”
- Wad, Atul. 1982. “제3세계 발전과 뉴테크놀로지.”